

벨기에 극장골, 일본에 극적 역전승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전

후반 중반까지 0-2로 뒤지는 중
내리 3골... 종료 30여초 남기고 결승골
7일 우승후보 브라질과 8강 맞대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 벨기에가 죽다가 살아났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월드컵 두 대회 연속으로 8강에 진출했다.

벨기에에는 3일 오전 3시(한국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의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전에서 먼저 2실점했지만 안 베르통언(토트넘), 마루앙 펠라이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과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나세르 샤텔리(웨스트브롬위치)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3-2로 이겼다.

후반 초반 연속으로 2골을 내리 중반까지 0-2로 뒤졌지만 높이와 힘을 바탕으로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었다.

'황금세대'로 불리는 벨기에에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 이어 두 대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독일, 스페인 등 우승후보들이 탈락한 가운데 우승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앞서 멕시코를 2-0으로 꺾은 브라질과 준결승 진출을 다룬다. 벨기에와 브라질의 8강전은 오는 7일 오전 3시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다.

16강 진출 여부가 걸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던 일본은 벨기에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실리 축구를 펼치며 먼저 2골을 기록, 벨기에를 벼랑 끝까지 몰았다. 승부처에서 유럽 특유의 높이와 힘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열세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매우 선전했다.

그래도 아쉬움이 크다. 이날 승리했다면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2002 한일월드컵,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두 차례 토너먼트에 오른 일본의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이다.

손흥민(토트넘)의 팀 동료인 베르통언은 실책성 플레이로 일본에 첫 골을 허용했지만 만회골을 터뜨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교체 투입된 펠라이니와 샤텔리는 동점골과 역전골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을 웃게 했다.

공격의 핵 에당 아자르(첼시)는 가운데와 측면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며 정확한 패스로 일본 수비진을 흔들었다.

일본의 하라구치 겐기(포르투나 뒤셀도르프), 이누이 다카시(에이바르)는 골맛을 봤지만 팀 패배로 웃지 못했다.

전반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벨기에가 공 점유율에서 55%-45%로 근소하게 앞서며 페널티박스 주변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실속이 없었다.

일본은 수비에 몰두하지 않고 적절히 공세를 펼쳤다. 전반 슈팅 개수는 벨기에가 10개(유효슈팅 2개), 일본이 4개(유효슈팅 1개)였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예상밖으로 일본이 먼저 균형을 깼다. 후반 3분 역습 기회에서 하라구치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벨기에의 골네트를 갈랐다. 시바사키 가쿠(헤타페)의 침투패스가 일품이었다.

벨기에 입장에서는 수비수 베르통언이 무리하게 패스를 끊으려다가 뒤로 흘린 장면이 아쉬움을 남겼다.

일본은 후반 7분 이누이 다카시(에이바르)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려 2-0으로 달아났다. 승기를 잡는 듯했다.



3일 오전 3시(한국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벨기에와 일본의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위너가 공격에 나서고 있다.

2골을 내준 벨기에에는 성급한 플레이로 잦은 실수가 이어졌고 선수끼리 짜증을 내는 모습도 나왔다. 벨기에에는 후반 20분 샤텔리, 마루앙 펠라이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적중했다. 후반 24분 만회골이 터졌다. 베르통언이 머리로 만든 행운의 골이었다. 머리로 크로스를 보낸다는 게 그대로 골문을 통과했다.

5분 만에 동점골도 나왔다. 후반 29분 아자르의 정확한 크로스를 펠라이니가 헤딩 동점골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벨기에의 좌우 측면을 공략했고 벨기에에는 아자르,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를 중심으로 일본을 위협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벨기에가 마침표를 찍었다. 추가시간으로 4분이 주어졌던 가운데 종료 30여초를 남기고 코너킥 세트피스를 막은 벨기에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고 샤텔리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뉴시스



“네이마르 영입은 사실무근”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 전면 부인

세계 최고 명문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네이마르(FSG) 영입설에 필적 뛰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3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FSG나 선수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페인 공영방송인 TVE는 레알 마드리드가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FSG에 3억1000만 유로(약 4032억원)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TVE의 보도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계약 확정이 아닌 이를 부인하기 위한 성명 발표는 이례적인 일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공영 방송이 쉽게 허위 정보를 방송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TVE의 행태를 꼬집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클럽인 FC바르셀로나에서 뛰던 네이마르는 지난 시즌 개막을 앞두고 PSG로 이적했다. 새 팀을 찾은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적설에 휘말리며 뜨거운 갑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군산시 개막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도시 군산에서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탁구대회가 막이 올랐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하고 대한탁구협회, 전라북도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 초중고, 대학, 일반 남녀 108개 팀 약 1,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하는 시도 대항 탁구대회는 전국 규모 중 가장 큰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경기 종목은 남녀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경기로 진행되며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탁구 슈퍼스타 정영식, 오상은, 주세혁, 유남규, 현정화, 김택수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선수 및 감독으로 참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체육인들의 화합과 자부심 확대는 물론 스포츠 마케팅에 더욱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숙박시설까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여 선수 및 관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남북 통일농구 '관심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 단일팀 성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을 꾸리기로 해 남북 통일농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100명은 3일 오전 10시 성남 공항공에서 군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평양으로 떠났다.

이번 남북 통일농구에서는 4일 남북 혼합경기가 열리고, 5일 친선경기가 진행된다. 혼합경기는 남북 선수들을 섞어 각각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눠 남북 감독이 한 팀씩 맡아 경기한다. 친선경기는 청팀(남측)과 홍팀(북측)으로 진행된다.

눈길은 쏠리는 것은 혼합경기에서 여자 팀의 모습이다. 아시안게임 단일팀 때문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 분위기가 조성됐다. 통일농구 경력이 있는 농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최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어느정도 확인한 여자 농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정부 대표·남녀 선수단 평양행... 오늘 남북 혼합경기 혼합경기 여자농구팀 '눈길' 북측 선수 기량 확인할 듯

이문규 女 대표팀 감독 “북한 선수 2-3명 가능성”

이에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남북 체육 관계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4차회의에서 여자 농구를 비롯해 카누, 조정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농구는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해 북측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역 대한농구협회장은 평양으로 떠나기 전 “아시안게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자 대표팀은 단일팀 협상 문제가 있다. 여자 농구팀 단일팀 구성에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험했지만, 단일팀 구성이 쉽지 않다. 어떻게 극복해 더 강한 팀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가 금메달을 땀는데 다시 한 번 우승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고 커다란 바람을 드러냈다.

이문규 여자 대표팀 감독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선수들을 평가해 봤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2, 3명 정도 있다. 기량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다. 우리 쪽 선수들이 합류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회장과 이 감독은 통일농구와 여자 대표팀 단일팀 구성이 나아가 통일의 발판이 되길 바랐다.

이 감독은 “스포츠 발전도 있지만, 서로 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3일 오전 서울공항공에서 군용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통일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 회장은 “통일농구가 연례행사로 이뤄져

농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